



# “행정통합 주민 삶과 밀접... 자치구 역할 중요” 광주시-5개 자치구, 현장 중심 행정통합 추진

### 강기정 시장-5개 구청장 간담회... “공감대 형성 앞장” 공동선언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5개 자치구 구청장 간담회’를 열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고광안 행정부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행정통

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설명하고, 통합을 통해 기대되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의와 공감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과 성장 정체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임을 확인하고,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광역 경제·행정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초 자치의 기능과 권한을 존중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앞으로 자치구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현장 중심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성패는 결국 시민들의 지지에 달려 있다”며 “주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혜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 북구,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 선물 드려요

### 북구 1년 이상 거주 중인 100세 어르신 20명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50만 원 상당의 장수 축하 선물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수 축하 선물 지급사업’은 경로 효친 분위기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기 위해 북구에서 작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앞서 북구는 장수 어르신 지원을 위해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

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는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면서 올해 만 100세가 되는 1926년생 어르신 20명이다.

이번 사업에는 고향 사랑 기금으로 조성된 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매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0세 생신을 앞둔 어르신에게 안내문을 송부하고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

건을 검토한 뒤 장수 축하 선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장수 축하 선물은 총 6종으로 구성됐다. 어르신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기존 4종(▲온수매트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 세트)에서 2종(▲전기밥솥 ▲노인보행기)을 추가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노인복지과(☎062-410-8401)에 문의하면 된다.

/송현근 기자

## 전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일팀 체제’ 가동

### 추진상황보고회서 조직위·여수시·연출감독 등과 종합점검

전라남도는 1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여수시·조직위 등과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일팀 체제’를 가동, 전시·행사·안전·교통 분야별 협업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는 여수시 부시장, 전남도 18개 실국장,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연출감독 등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전남도 지원 TF와 여수시,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협업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논의했다.

특히 ▲주 행사장과 전시공간 조성 ▲전시·연출·콘텐츠 ▲행사·공연·체험 프로그램 ▲홍보·관람객 유치 ▲국제협력 ▲안전관리·교통대책 등 박람회 전 분야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국 간 연계 협력과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주 행사장 기반시설과 전시공간 조성은 현재 40%대 공정을 넘어섰으며, 2026년 7월까지 주요 시설을 완공하고 8월 시범운영 후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랜드마크(주제관)는 외부 미디어파사드와 이머시브 전시를



결합한 박람회 상징 공간으로, 이번 달 착공해 개마 전까지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시 콘텐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섬해양생태관, 섬미래관, 섬공동관 등 7개 전시관은 환경·기술·문화·산업을 아우르는 섬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담아 2026년 4월까지 콘텐츠 제작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설치와 리허설에 들어간다. 섬 테마존과 아트포토존은 7월까지 조성을 완료해 관람객 체험과 SNS 확산을 통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행사·공연·체험 프로그램도 본격화한다. D-50 기념행사와 개·폐막식을 중

심으로 세계섬문화공연, 섬공연예술제, 야간공연 등 주·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류형 박람회로 완성도를 높인다. 개도·금오도에서는 섬 캠핑과 섬 스포츠가 진행되고, 여수세계섬박람회장은 국제 학술대회가 열려 섬 정책과 국제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관람객 유치와 국제 접근성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전남도는 관람객 3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국내 수학여행단과 기업·기관 연수 프로그램을 연계한 단체관광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해외는 참가국 네트워크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펼친다.

/염선호 기자

## 서구, 장애인 선택 폭 넓힌 ‘개인예산제’ 도입

### 바우처 급여 최대 20% 개인예산 전환... 5월부터 시범 운영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장애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맞춤형 예산 지원으로 편의 증진에 나선다. 서구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총 7500여 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및 건강권 강화’의 일환으

로 추진됐으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선택·계획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구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중 1개 이상을 이용 중인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참여자는 본인이 이용 중인 바우처 급여의 최대 20%까지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용 특수 신발 구입, 주거 환경 개선, 교육 수강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전반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류·담배·복권 등 사업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된다.

서구는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구장애인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용계획 수립부터 예산 집행, 정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참여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박석우 기자

## 동구 ‘맘택시’ 3년 차, 이용자·운행 모두 증가

### 출산·육아 가정의 대표 이동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

광주 동구는 ‘동구 맘택시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 3년 차를 맞아 이용자 수와 운행 건수가 모두 꾸준히 증가하며 출산·육아 가정을 위한 대표적인 이동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맘택시 이용자는 지난 2024년 약 900명에서 2025년 1,100여 명으로 20%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운행 건수도 2,400여 건에서 2,600여 건으로 증가

해 실질적인 수요 확대가 확인됐다.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신 기간 정기검진뿐 아니라 출산 이후 영유아 예방접종과 각종 검진 등으로 이어지며, 일회성 이용이 아닌 반복·지속적인 이용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이를 두고 “임신 후기와 출산 직후처럼 이동이 특히 어려운 시기에 맘택시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라

고 설명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다. ‘의료 목적 이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2024년 86.9%에서 2025년 91.8%로 크게 상승했다.

동구 관계자는 “맘택시는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출산 가정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정책”이라면서 “3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